

오디의 재배 방법

한울특용수육종영농조합법인

오디는 예로부터 이용되어 오던 천연 웰빙 건강식품이다. 현대인의 기호와 정서에 맞게 건강음료와 고급와인 등으로 개발의 여지가 무척 많다. 성장이 빠르고 병충해가 거의 없으며 손쉽게 재배가 가능한 오디는 어려운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새로운 소득원으로 개발 할 필요가 있어 그 특성을 기술한다.

1. 오디 재배의 방법

가. 품종 선택

오디의 재배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사항의 하나로는 어떠한 품종을 심는 것인데 당도가 높고 병충해에 강하고 열매가 크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좋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역사가 짧아 많은 품종이 없는 실정이나 오디용 품종으로 등록된 것으로 “대성뽕”이 있고, 가장 대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검증이 된 것으로 “청일뽕”이 있다.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에서 몇 가지의 품종을 육성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오디 전용품종이 만들어 지리라 생각한다. 현재 오디가 많이 달리고 당도가 높은 품종으로 청일뽕과 국상 20호, 수원뽕 등이 있다. 근래 오디가 지역에 따라 붉어지기 시작하자 출처불명의 묘목이 식재되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나. 식재방법

뽕나무는 다소 척박한 곳에서도 잘 자라지만 유의해야 할 점은 과습에 약하므로 미리 배수구나 도랑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물론 비옥한 곳에 심는 것이 훨씬 유리하며 성장을 촉진시키는 일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

발효가 된 퇴비를 전면에 살포하고 로터리 한 후 식재하는데 너무 깊이 심지 않도록 유의한다. 깊게 심을수록 물 빠짐이 잘 되지 않으므로 가급적 높이 심도록 한다.

식재 간격은 3m 정도의 이랑에 포기 사이 1.5m 정도로 하여 300평당 200주 정도 식재한다. 물론 이보다 넓게 심을 경우 초기수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안하여 심는다.

다. 오디의 결실습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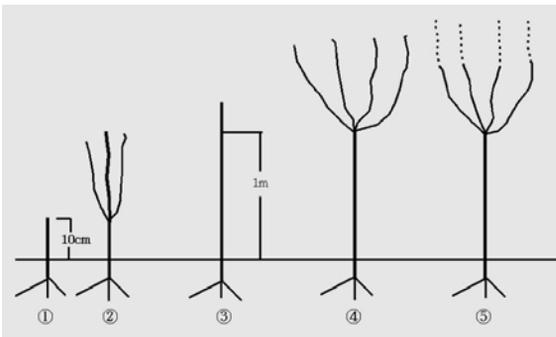
뽕나무의 결실은 품종에 따라 1년생의 가지 또는 2년생 가지에 잎이 나오는 눈에는 모두 결실한다. 다른 나무와는 다르게 한 번 결실한 가지는 모두 다음해에도 계속 열매가 달리기 때문에 나무가 클수록 수확량이 많아진다. 청일뽕의 경우 2년생 가지 이상에서 계속 결실하기 때문에 3년째부터 수확을 하게 되는데 3년째의 수확은 식재 당년에 자란 가지 전부에서, 4년째의 수확은 식재 당년과 그 다음해까지 자란 가지까지 하게 되며 적당한 조건일 경우 잎이 발생하는 2년생 가지 이상의 모든 가지에서 잎은 한 장이지만 오디는 몇 개씩 수확한다. 1년생 이상의 가지에서 열매가 달리는 품종은

대성뽕이 있으며 식재 다음해부터 결실한다. 대성뽕은 심은 해에 바로 달릴 수도 있는데 묘목 양성 시 자란 가지를 자르지 않고 심을 경우이다. 식재 첫해부터 결실하면 식재 당년에 많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수확량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심은 해와 그 다음해의 성장이 순조로우면 청일뽕의 경우 수확 2년차(4년차)가 되면 대부분 1,000kg 정도 수확할 수 있다. 가지가 굵어지면 눈이 퇴화하여 결실이 되지 않으므로 잔가지를 발생시켜 적당한 수확이 되도록 하며 지나치게 많으면 햇빛이 적게 들고 모양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품질이 떨어지게 되므로 유의한다.

라. 나무모양 만들기

오디의 수확은 사과과원처럼 적당한 간격으로 조성되어야함으로 너무 높게 키우거나 방임하거나, 또는 낮은 곳에서부터 가지를 만들면 수확이 어렵고 관리가 어려우므로 모양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수확이 쉽고 관리가 용이한 방법으로는 중간 가꾸기를 권장하는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심은 후 줄기를 10cm 정도 남기고 자른다(짧게 자를수록 눈이 적어 빨리 자란다).
- ② 몇 개의 가지가 발생하면 가급적 빨리 곧게 자라는 1가지만 남기고 나머지 가지는 잘라준다

(4월말~5월 초).

- ③ 1m 이상 자라면 1m 정도의 높이에서 잘라준다(6월~7월).
- ④ 1m 정도의 높이에서 자란 가지 4~5개를 그대로 가을까지 기른다(성장이 좋은 곳에서는 2m 이상이 되기도 한다).
- ⑤ 2년째에는 그대로 길러준다(1m 이하에서 발생하는 가지나 불필요한 가지만 잘라준다).
- ⑥ 3년째 수확 후 너무 많이 자란 경우 나무의 상태에 따라 적당한 높이에서 잘라준다(높이 제한).

성장하는 상태나 수확의 정도, 식재간격에 따라 높이를 다르게 키울 수 있다.

마. 일반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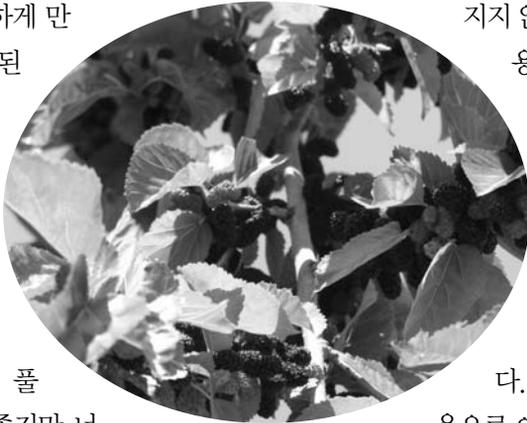
① 비료살포

식재 시 적당한 퇴비를 살포하였다 하더라도 또 자체적으로 성장이 왕성하여 많이 자랐다 하더라도 첫해의 자람이 바로 결실이므로 많이 키우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비료를 살포한다. 잎이 나와서 왕성한 생육을 하기 시작하면 나무 주변에 적당한 비료를 준다. 화학비료의 경우 많이 주면 피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종류에 따라 틀리나 한 줌 정도씩 토양 수분이 충분할 때 8월까지 3~5회 정도 뿌려준다. 유기질 비료를 주어도 좋다.

청일뽕의 경우 첫해에는 무조건 기르고 두 번째 해부터 나무의 크기를 제한하는데 첫해에 조금밖에 자라지 못한 경우에는 빨리 자라게 하는 것이 좋다. 가을에 꽃눈이 만들어질 때 생육이 너무 왕성하면 꽃눈의 분화가 적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관찰을 하여 관리의 기본을 만든다. 뽕나무는 성장이 매우 빠르므로 대부분 2년만 기르면 기본 골격이 만들어지게 된다. 3년째부터는 비료의 량을 조절한다.

② 제초관리

아무리 잘 심었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두면 얼마 가지 않아 풀밭이 되고 말기 때문에 처음부터 잡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풀을 자라게 한 다음 깎아 주는 방법이 있으나 많은 노동력이 들지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시기를 놓치면 더욱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잘 못하면 아예 포기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한다. 나무 주변에 신문지나 헝겂, 골판지 상자를 덮어주면 풀이 나지 못하므로 소량일 경우 적용하고 대규모 재배의 경우 멀칭을 하는 것이 좋는데 풀이 어느 정도 자란 후 차광망이나 부직포 등을 덮어 준다. 풀이 나지 못하게 만든 제초매트를 덮어주어도 된다. 비닐멀칭은 빗물이 들어가지 않고 비료를 살포할 수 없기 때문에 꼭 좋은 것은 아니다. 평평한 곳에 일정한 간격으로 대량 심은 경우 관리기에 부착된 예초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풀이 자란 후 뽑아주는 것도 좋지만 나무 많은 비용과 노동력이 들어가므로 가끔적 멀칭을 하는 것이 좋다.



③ 병충해 관리

뽕나무는 대체로 병해충이 적은 작물로 약을 거의 치지 않고 재배할 수도 있으나 혹 발생할지 모르는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한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뽕나무 이는 성충으로 겨울을 나며, 잎이 필 때 성충이 잎 뒷면에 알을 낳는다. 유충이 부화해 잎 뒷면에서 즙액을 빨아먹고 흰색 분비물을 내어 잎과 오디에 피해를 준다.

이른 봄 겨울눈이 틀 무렵 DDVP유제, 디프수화제 등 1,000배액을 잎 앞, 뒷면과 뽕밭 주변에 충분

히 살포해 월동성충을 방제한다. 근래 친환경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등록된 것(님-오일 등)등은 오디가 생육 중에 뿌려도 되는 것이 있다. 실제 본 조합에서묘목을 양성하고 나무를 식재 후 길러보니 병충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2. 오디의 수확과 저장 및 전량

품종에 따라 그리고 지역이나 기상에 따라 수확 시기의 차이가 난다. 대체로 6월 초순부터 수확하며 6월 중.하순이면 수확이 끝이 난다. 잘 떨어지지 않는 대성뽕은 손으로 따서 생과용으로 출하하면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관광자원화하거나 체험현장에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 청일뽕은 당도가 높고 잘 떨어지고 한꺼번에 익기 때문에 나무 아래 그물망을 깔아 놓고 흔들면 된다. 당도가 높은 청일뽕 등은 가공용으로 이용하고 와인을 만들면 좋을 것이다. 오디는 땅바닥에 떨어지면 흙이 묻어 못쓰게 되니 유의하고 3일 정도의 간격으로 흔들어 따는 것이 좋다. 오디는 수분함량이 높고 고온철에 수확이 되어 부패가 빠르기 때문에 곧바로 냉동시키는 것이 좋다. 냉동시킨 오디는 연중 가공업체에 납품이 가능하고 원액을 만들어 보관할 수도 있다.

오디는 가공이 용이하여 집에서 주스, 잼, 술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미 다양한 가공식품이 만들어져 판매되고 있다. 현재 대형 음료업체와 주류업계에서 오디가공 산업으로 진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어려운 농촌에 오디재배가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